

두려워 말라 Fear not

Matthew 14:22-33

한국에서는 물난리로 피해가 막심하다는 소식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참 물 폭탄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 미국에서도, 지난 주일에 이사이아스 태풍으로 피해가 많았습니다. 전기가 끊어지고, 인터넷도 불통이 되고, 우물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물이 나오지 않아 고생하였습니다. 아직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주 화요일이었지요? 오후 2 시 30 분경 비상 텍스팅이 전달되었습니다. “토네이도 강한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니 주의하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지하실로 대피하라고 하였습니다. 지하실이 없으면 낮은 층으로 내려가 있으라고 했지요. 운전하고 있으면, 차를 세우고 피할 곳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장모님 장인어른하고 아내는 가만히 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니까, 나무들이 꼭 엇가락 처럼, 늘어지고 휘어지고 정신없이 움직여 되었지요.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문 열고 나가서 녹음을 했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바람이 불어대고 있어서요. 가까이서 나무가지가 꺾이는 소리, 나무가지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었습니다. 전기가 많이 끊긴 것이 놀랄 일이 아닙니다.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인간이기에 갖게 되는 겁니다. 사실 두려워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불을 무서워하는 것은 건강하다는 징조입니다. 무서워하지 않고 불에 손을 갖다댄다면, 화상을 입고 고생합니다. 태풍이 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경고하는 소리를 무시하면, 태풍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눌리어 숨막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쌍둥이 동생이 어린 나이, 21 살 때에, 태평양 물에 빠져 안타깝게도 먼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님께서 물 가까이 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당부해서가 아니라, 동생이 바닷가에서 사고를 당한 후에, 사실, 그렇게 멋있게 보였던 태평양이 무서워 졌습니다 태평양이 말그대로 태평한 바다인데, 더 이상 태평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평양이 넓게 보이는, 토렌스 레돈도 해안가를 자주 걸으면서 데이트도 많이 했는데, 동생이 떠난 후에, 그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물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멀리하십니까? 무서워하시나요? 어둠을 무서워합니다. 개는 좋아하는 데, 사자나 호랑이 뱀을 무서워합니다. 사고 날까봐 두려워합니다. 병이 걸리까봐 두려워합니다. 전쟁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자기랑 피부 색깔이 다르든지, 언어가 다르든지, 국적이 다르든지 하며는, 멀리합니다.

남들에게 놀림 당하고, 왕따 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인정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실패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알지 못하는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잡혀서 과거의 경험에 붙잡히어서,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또 죽는 것이 두려워합니다.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또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쩡하나 두려워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쩡하나 두려워합니다. 지옥에 떨어지면 어쩡하나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사방 천지에 깔려있습니다. 이런 저런 두려움에 쌓여서 사는 우리들입니다.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병에 걸렸다고 진단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며는, “두려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이 미지의 세계로 이민을 가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두려워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리라 너의 상급이 클것이다. (창세기 15:1)

홍해 앞에서, 뒤에는, 바로의 전차들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 막혀 있는 상황에, 히브리 백성들이 사면초가에 몰려 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외칩니다. “잠잠히 있어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 (출애굽기 14:13)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어린 소녀 마리아를 찾아아서, 성령으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때,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마리아여 두려워말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니라” 하였습니다. (눅 1:30)

예수님께서, 걸음이 지체가 되어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오직 믿어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눅 8:50)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참으로 그 분은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눅 12:7)

요한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를 기록하였는데, 1 장 17 절에, '나는 그분을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마치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 하지말라, 떨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300 번이 넘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365 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년 매일, 365 일, 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로, 366 번이라고 합니다. 윤년까지 감안하셔서, 성경에서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1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의심많은 쌍둥이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 다음으로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옆으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귀신이다. 제자들이 소리를 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나다. 무서워하지 말고 안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이 용감하고 순발력이 멋지지 않습니까? 주님이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가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갔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멋진 장면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의 거친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였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니 물에 빠졌습니다. 의심에 빠지니 물에 빠졌습니다. 풍랑 가운데 계신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풍랑에 시선이 가는 바람에 빠졌습니다. "믿음의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배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기 전에, 나와 동역자가 되어 살자고, 오병이어 기적 사건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과 함께 하는 믿음은 아침 안개 처럼 사라지고, 무서운 파도와 바람에 눌려서, 의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까?

상황이 험악해 지면, 의심합니다. 예기치 않은 풍랑이 일어나면, 의심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절망감에 빠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아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나?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나 그리고 응답하시나?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진정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시는 건가? 그리고 이 의심은 우리를 더욱 깊은 나락에 빠지게 합니다. 두려움과 의심에 빠지면, 물에 빠지게 되고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1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고 하지만, 우리를 깨우쳐 주는 복음, 기쁜 소식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베드로는 소리쳤습니다. “주님, 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살려달라고 소리쳤을 때, 구원의 손길이 그를 물에서 건져내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의심으로 인하여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될 때에, 거친 높은 파도가 우리를 뒤엎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단 하나 있다는 사실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뻗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눈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네 마음에 근심있느냐 어둠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그 밝은 빛 찾아오라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보라

주의 은혜와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세상 두려움은 사라지네.

눈을 주님께 돌리면, 세상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눈을 주님께 돌리면,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립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이사야 41:10)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어떤 폭풍우가 이번 주간에, 이번 해에 닥칠 지 저는 모릅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어떤 폭풍우 가운데 거하고 있는 지, 평생, 어떤 폭풍우를 헤치고 나아가야 할 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온 세상이 사실 험한 폭풍우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라는 폭풍우에 휩싸여 있습니다. 벌써 반년이 넘게 휩싸여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몰아칠 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그칠 지 가늠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 과학자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폭풍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지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폭풍우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당장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겨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왕성하게 활동하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겨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를 지키시며 네 오른편에서 너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네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시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실 것이니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 (시편 121 편)

수영 배운 이야기. 샌디에고에서 첫 목회 했을 때 일입니다. 월요일만 되면, 아파트 한 쪽에 있는 수영장에 가서, 따듯한 남가주 날씨를 즐기면서 모자란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끗한 수영장을 보면서, 수영을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지요. 그 친구 왈, “물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 수영의 첫걸음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도해 보았습니다. 물에다가 몸을 맡기자 하면서 수영장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 몸이 가라앉는 거예요. 앞으로 가기는 커녕, 몸이 물 속으로 가라앉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물을 많이 마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물 위에 둥둥 떠서, 남가주의 맑고 파란 하늘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물이 제 몸을 들어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떠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는 지 모릅니다. 얼마나 신기했는 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거저 베푸시는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데, 난 아무 것도 내 세울 것이 없는데, 나를 붙잡아 주시고, 둥둥 뜨게 하시고, 자유롭게 수영하게 하시는 은혜 입니다. 물을 신뢰하듯,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맡길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두려움에서 헤어나오려고 발버둥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가만히 있어,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눈을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온전히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베푸시는 평강, 자유 그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두려움에 눌리지 않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은 간 곳 없고 사랑의 주만 보이는 간증과 찬송이 넘치게 됩니다.

맨하탄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목회하였던 해리 에머슨 포스딕 목사님이 두려움과 믿음이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소개합니다.

두려움은 속박합니다. 믿음은 자유케 합니다.

두려움은 마비시킵니다. 믿음은 능력을 줍니다.

두려움은 낙심시킵니다. 믿음은 용기를 줍니다.

두려움은 병들게 합니다. 믿음은 치유합니다.

두려움은 쓸모없이 만듭니다. 믿음은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움은 절망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심어 놓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두려움이 자리를 펼 곳이 없다.” (마크 파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자리를 펼 곳이 없다”

바울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였습니다. (고후 5:7)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휩싸여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입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하며 정진하는 믿음의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